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 임금보전

돌봄전담사 등에 감사의 뜻...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지원 대책도 마련

김승환 교육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들은 학교현장에서 코로나 19 상황이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라며 의지와 힘을 모아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의

위험 속에서도 긴급돌봄을 위해 애쓰는 돌봄전담사 등을 포함해 모든 교육공무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한 것이다. 또한 전주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방학중 비근무자들의 연간 근무일수에 변동이 없도록 하고, 3주간의 근무 공백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방안을 통해 3월 임금을 보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생계지원 대책은 방학중 비근무자 10개 직종 4,329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맞춤형복지비 50만원은 모든 교육공무직원(상시·비상시)에게 3월에 일괄 지급한다.

최대 45만원 정기상여금과 40만원 연차수당은 방학중 비근무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지원한다.

이럴 경우 조리종사원 등 주40시간 방학 중 비근무자는 135만원 가량이 보전돼, 3월 정상근무 임금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우석대, 완주 취약층에 한방보약 400세트 기탁

우석대학교가 10일 완주지역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방보약인 녹용 대보단 400세트(1000만원 상당)를 완주군에 전달했다.

이날 완주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박성일 군수 등 두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우석대 남천현 총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업무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박성일 군수를 비롯해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하고, 우석대 부속 한방병원에서 생산된 녹용대보단 400세트를 기탁했다.

면역력 증강에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는 녹용 대보단은 완주군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 등 필요한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 총장은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분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웃을 위한 배려와 응원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면서 "모든 군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기자



우석대학교가 10일 완주지역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방보약인 녹용 대보단 400세트(1000만원 상당)를 완주군에 전달했다.

도교육청,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20억 지원

유휴교실 활용 유도장·검도장 등 초·중·고 40여곳에 조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조성에 나섰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40여 개교에 대해 총 20억원을 지원 올해 연말까지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은 정규체육관 규격에는 미달되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교실 면적의 2~3배 크기로서 유도장, 검도장, 탁구장, 무용, 놀이교육 등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현재 도내 772개 초·중·고, 특수학교 중 체육관을 보유하지 않은 학교는 공동사용학교를 포함해 모두 134개 학교로 약 18% 정도다.

정규 체육관 신축비용은 1개교당 15~40억 원이다. 교실 2칸 크기 이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체육활동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이에 따라 학교의 신청을 받아 1개교당 약 5천만 원을 지원해 바닥에 매트나 마루를 설치하고 벽면 보호매트, 전등 보호망, 유리창 안전 보호 필름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건강보호를 위해 유해물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조성할 것이다"며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조성으로 유휴교실 활용도를 높이고, 또 실내체육관 미보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비전대, 학교 건물·강의실 등 방역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교내 특별방역에 나섰다

고 10일 밝혔다. 이날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코로나19-Free, 학습 안전지대'를 목표로 정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건물 내 소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최형주 행정처장은 "전주비전대는 10일부터 1일 단위로 교직원으로 구성된 분임조를 편성해 건물단위별 전체 방역과 강의실, 연구실, 행정실, 화장실 등 감염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모든 건물의 문고리, 창문, 책상, 의자 등에 대해 면밀하게 방역 및 소독하기로 했다" 설명했다.

홍순직 총장은 "코로나19 지역확산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학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특별방역과 소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정시확대·자사고·외고 폐지”

교육부, 사교육비 잡기 올인 불법 학원 실명 공개 추진도

올해 총 21조원에 달하는 초·중·고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대입 공정성 확대와 자사고·외고 등 폐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수요가 높은 영어와 수학은 인공지능(AI) 연계시스템이나 온라인 학습 사이트로 보조한다는 내용도 함께 내놨다.

학원에 대한 제재로는 입시컨설팅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상한가 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필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학원은 실명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 공정성강화방안에 따라 서울 16개 대학에 대한 정시 비중을 2024년까지 40%로 확대하고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그밖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존 정책들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는 1년간 1조5000억원(7.8%)이 늘어난 21조원으로 집계됐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지난 2009년 21조6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2015년 17조8000억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2016년 18조1000억원, 2017년 18조18조7000억원으로 오르더니 2018년 19조5000억원, 2019년 21조원으로 경총 뛰었다.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는 정시 확대 외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개선하고 논술·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해 학생부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전형

을 단순화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을 개발한다.

또한 과제형 수행평가를 금지하고 소논문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등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이 초등학생 시기부터 선행학습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과학교육과 영재학교도 입시에서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현재 전기모집인 고등학교 지원시기를 다른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맞추는 등 방안을 올해 상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사교육영향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의 돌봄 및 기초학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지한다. 올해 42만5000명의 아이들이 학교돌봄교실과 마을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충하고 신청시스템도 구축해 학원 대신 돌봄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기초학력의 경우 초등 1학년은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정해 학습결손이 없도록 담임과 상담교사 등이 책임지도록 강화하고 국가와 시·도,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책무성을 강화하는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곧 마무리되는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학교 내신성과 관련된해서는 교사 평가 외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개선하고 논술·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해 학생부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전형

/뉴시스

전북119안전체험관 '위터슬라이드 체험' 신설

전북119안전체험관이 물놀이 안전체험장에 위터슬라이드를 설치해 안전교육과 체험이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를 체험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2016~2018년)간 발생한 물놀이시설 안전사고 중 슬라이드 사고가 65.8%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시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억8000만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35m 위터슬라이드 2개를 설치한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체험할 수 있는 익수사고 체험, 선박 탈출 체험, 급류체험, 구명뗏목, 인명구조체험 등이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위터슬라이드를 통한 비상탈출 체험이 가능할 전망이다.

체험관 관계자는 "1년 365일, 사시사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개발해 체험관에 방문하는 분들이 유익하고 즐거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지표영선

JIPYEONGSEON

www.jpssmall.com

063-547-1707

쌀

파프리카

포도

배

감자

한우

한돈

보리